니까야서 길을 묻다 팔정도(八正道) ⑦

계율 바탕 둔 유익함의 성취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正精進)에 대한 〈대념처경〉의 설명을 들어보자.

"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들은 [마음속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생겨난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익한 것들은 생겨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생겨난 유익한 것들은 지속시켜 흩어지지 않게 하고 더욱 넓히고 닦아서 가득 채우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그림 · 나은영

긴 내용으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구절을 제외하면 네 가지 노력으로 압축된다. 여기서 노력의 전모는 '유익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스스로의 마음에 '아직 생겨나지 않음'과 '이미 생겨남'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해로움'의 발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들을 사실대로 인지하여 해로움은 제거하고 유익함은 확장하려는 노력이 바로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正精進)의 내용이다.

이 네 가지 노력은 불교 교의에서 '네 가지 꾸준한 노력'(四正勤)이라 부르는 것인데, 실천수행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깨달음을 이루는 37갈래의 실천수행'(三十七菩提分法)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는 37가지 방법으로 도(道)를 성취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37조도품'(三十七助道品)이라고도 한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 또한 서른일곱 중의 여덟 가지 요소이므로, 실천수행론의 종합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들 하나하나의 면모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힘써 나아감'(精進)의 목적지가 '유익함'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의 처음부터 제시하였지만, 불교 수행 길의 제1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正精進)의 의의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하나의 설정에 머물러 있지 않다. '유익함'의 성취를 위한 노력은 지켜야할 원칙과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율정신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며,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 및 사유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혜'의 갖춤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이 계율의 성격을 띠고,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가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면 정정진(正精進)은 이들과 결합된 수행 길로써의 의미와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팔정도는 여덟 가지 서로 다른 수행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수행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 처음부터 유일하거나 우월한 길이란 없으며, 서로에게 열려 있는 그저 하나의 길이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길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팔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덟 갈래의 길 하나하나는 서로에게 열려 있고 맞물려 있는 실천체계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요소다. 〈대념처경〉에 따르면, 정념은 사념처(四念處)로 정정은 사선(四禪)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긴 논의가 필요하므로 팔정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갖가지 불교명상의 하나하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종교 울타리 넘은 도반들…



시민자원봉사연합회 도반들이 배식봉사를 앞두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 뒷줄 세 번째가 회장인 도원 스님이다. 앞줄은 이날 봉사팀으로 나선 푸른마을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 이중 2명이 성보사 신도라고 밝혔다.

道伴의 향기

시민자원봉사연합회

"종교는 달라도 이웃사랑은 한가지입니다."

6월 14일 낮 12시 무렵, 한산했던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의 한 건물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찾아들었다. 200㎡ 남짓한 식당에 가득 모인 80여 어르신들에게 봉사자들이 따뜻한 김이 나는 음식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면서도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밝은 웃음을 보이는 이들은 시민자원봉사연합회(이하 시자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었다.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신자들로 이뤄진 이들은 2008년부터 고양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8년째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하며, 종교를 초월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양동은 고양시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배식이 진행된 시민자원봉사센터는 멀리 떨어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신해 지역민들의 복지센터 역할도 맡고 있었다. 인근 복지시설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였기에 시민자원봉사센터에는 한 끼 해결을 위해 찾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몰려드는 어르신들로 인해 봉사센터 식당은 배식을 시작하고 금세 북새통을 이뤘다.

밀려드는 어르신들로 봉사자들은 연신 식판에 밥을 뜨고, 반찬을 올리느라 분주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직접 식판을 나르는 한 스님이 눈에 띄었다. 바로 시민자원봉사연합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성보사 주지 도원 스님이었다. 스님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점심이 담긴 식판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한 어르신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스님에게 속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배식을 받은 김정흥(법계화, 92) 씨는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을 위해 매일 사찰에서 함께 기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려운 사정을 챙겨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회 문제에 사찰이 구원투수로

스님이 사찰 소속의 봉사단체를 창립해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만 시민봉사단체를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어떻게 해서 사찰 주지스님이 지역 시민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을까. 사연은 길었다.

2008년 지역민 돕는 취지로 창립
2013년 재정난에 도원 스님 나서
성보사 신도 재정 후원, 봉사 앞장
어려움 딛고 지역봉사 중심 '우뚝'

도원 스님이 시자연을 맡게 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시자연은 고양동 일대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우일덕 개명장학회장과 김금복(주)통일로 사장이 지역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만든 단체였다.

출발은 고양동파출소 옆 가건물 무료급식소로 시작됐다. 지역민들의 나눔활동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지역 불자들도 봉사에 동참했다. 특히 시자연 사무실 인근 성보사 신도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배식봉사에 동참한 성보사 신도 최인숙 보살은 "처음에는 옆집 사람의 동참권유로 봉사에 나서게 됐다. 고양시 불교봉사단체인 천수천안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돕자는 취지가 좋아 동참했다"며 "성보사 내에서 많은 이들이 취지에 공감해 먼저 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도들이 봉사활동에 나서자 자연스럽게 주지스님도 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스님은 처음에 한 명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2대 회장을 맡았던 개신교회 목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며 사퇴하게 됐고 시자연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시자연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봉사자들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도원 스님에게 시자연을 부탁했다.

스님은 처음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주변의 설득에 "동네에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회장직을 맡게 됐다.

봉사단체를 이끄는 것은 감투가 아닌 봉사자의 봉사직이었다. 당시 시자연은 고양시에서 지원받던 28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끊긴 상태였고, 후원자도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다른 문제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다. 스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보사 신도들이 힘을 보태게 됐다.

"평소에 스님이 신도들에게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집행 시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스님이 시자연을 맡게 된 것을 신도들이 알고 속사정을 듣게 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시자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허계숙 보살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허 보살은 "당시에는 배식봉사팀도 지금보다는 적었다"고 전했다.

도원 스님과 신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후원금을 지원하고 다른 배식봉사자들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무료급식을 진행하나보니 봉사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후원도 꾸준히 증가해 200여 명이 동참하고 고양시와 경기도에서도 다시 지원금이 나오게 됐다.

현재 시자연의 한 해 사업비용은 1억3000만원. 후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산불원
051-231-6455 / 010-9049-0016
• 후원계좌 : 국민은행 106937-04-001891 다산불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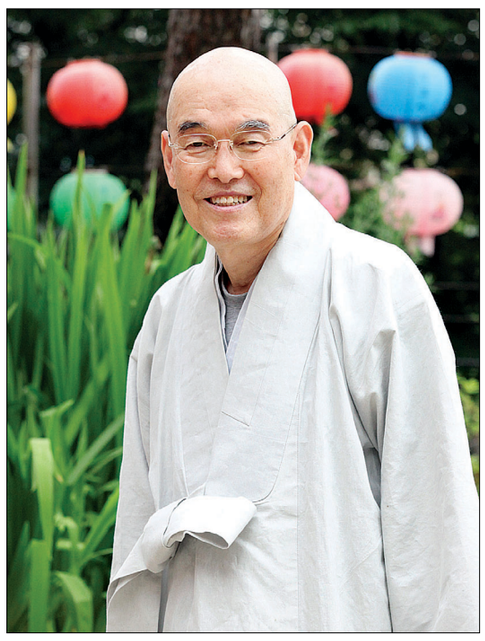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8년째 자비 나눔 '훈훈'


시민자원봉사연합회장 도원 스님.



2011년 12월 열린 시민자원봉사연합회 제3회 봉사자의 밤 행사.



2012년 4월 연합회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모습.


2015년 연합회 제5회 노인의날 경로대잔치.



2013년 2월 고양새마을금고 쌀 및 후원금 전달식.

원금과 지원금을 제하고도 센터 임대료와 고정 인건비 등 연간 6000만원을 지금도 성보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자연 활동을 하고 있는 성보사 신도 이인자 보살은 "배식봉사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하시라고 집에서 매일 108배도 올리고 있다. 일산 신도시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나오는데,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도원 스님은 "시자연을 맡은 2013년에는 한 개 팀이 무료도시락을 30개나 배달했으나, 현재 네 개 팀이 하루 100여 개를 배달하고 있다"며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20여 분에게는 보내지 못하고 있다. 여력이 된다면 도시락을 더 드리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사회서 출범해, 도반으로 뭉쳐

시자연의 어려움에 적극 나선 성보사는 여타 사찰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다. 성보사 스님과 신도들이 일치단결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승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도원 스님은 故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창립한 대한불교법사회 출신으로 1970년대 초 불교에 귀의 후 유마선원 이재열 법사 등과 함께 수학했다. 이후 스님은 1977년 재가불자들과 불광동 한 건물 옥탑에 작은 법당을 만들었고 이것이 성보사의 시작이었다. 당시 스님은 불자들과 공부하는 교육도량으로 사찰을 꾸렸다. 이론교육과 함께 실천을 위해 스님과 불자들은 1984년 고양불교산악회를 구성하고 산림정화, 지역 어르신 돕기 등 사회활동에 나섰다.

1990년 삼송지구가 재개발되며 성보사는 고양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사찰합창단을 구성해 지역사랑음악회를 5년 연속 개최하는가 하면 매년 경로잔치와 성보사장학회를 통한 장학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도원 스님은 고양시사암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내고 2001년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 구성에 중심역할을 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보사 신도 최경숙 보살은 "1970년대 불광동 옥탑시절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다녔다.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 모두가 불교의 사회기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보살은 매주 첫째 주와 넷째 주에는 시자연 봉사를, 천수천안봉사단에서도 매주 1회씩 봉사하고 있다. 최 보살은 고양시로부터 6월 21일 자원봉사왕에 뽑히기도 했다.

최 보살은 "성보사에서 매년 자선바자회인 녹빛축제를 여는데 그 수익금으로 무료급식소를 지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마음으로 뭉쳐 하다 보니 지금은 재미있게 하고 있다. 신심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민 한마음 뭉치는 계기로

시자연은 성보사가 활동에 열심이지만 불교, 기독교, 고양시의 시민단체들 모두 한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흥국사, 약천사 등 지역사찰 신도들과 인근 교회, 성당, 고양동과 관산동 주부단체들이 매일 조를 짜서 조리 봉사를 한다.

성보사 법사도량으로 77년 출발
재정공개로 신도 참여열기 높아
17년 삼송 이전, 나눔 터전으로
도원 스님 "사회기여 지속할 것"

스님은 날씨가 더워지는 초여름에도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기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상과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특히 1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시자연 회원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과 밑반찬을 전달하고 청소와 말벗을 해주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병원에 모시고 가 치료를 돕기도 한다.

신득철 자문위원은 "고양동 일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매년 4~5명의 독거노인들이 의문사 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최근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찾아가 독거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드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자원봉사연합회는 2009년도 고양시 시민자원봉사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원 스님은 "한번은 매일 도시락을 드리기 위해 찾던 한 어르신 집 문이 잠겨 있어 119를 급하게 불렀다. 함께 들어가 보니 어르신이 쓰러져 계셔서 병원에 후송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신 상태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교회 집사인 김준호 감사는 "사찰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불교포교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 창립한 그 취지대로 지역봉사에 집중하는 것에 스님과 사찰신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싶다"며 "올해 스님이 연임했는데 그런 점을 시자연 봉사자들이 모두 느꼈기 때문이다. 불교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많은 봉사자들 중에 도원 스님은 특히 고양동 젊은 주부들의 모임인 '고아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고아미'는 '고양동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MEET'이란 뜻의 줄임말로 6000여 회원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다. 이경민 고아미 대표가 현재 시자연 부회장을 맡아 회원들과 참여하고 있다.

이경민 대표는 "시자연은 현재 주민주도 봉사에 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상적인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도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복지나눔을 실현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원 스님은 "향후 일반시민들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금을 3000원, 5000원, 1만원 등 다양하게 변경할 계획"이라며 "2017년 삼송지구 개발이 끝나 다시 성보사 이전이 계획되고 있다. 지금 사찰건물을 지역민들을 돕는데 쓰는 등 나눔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곳곳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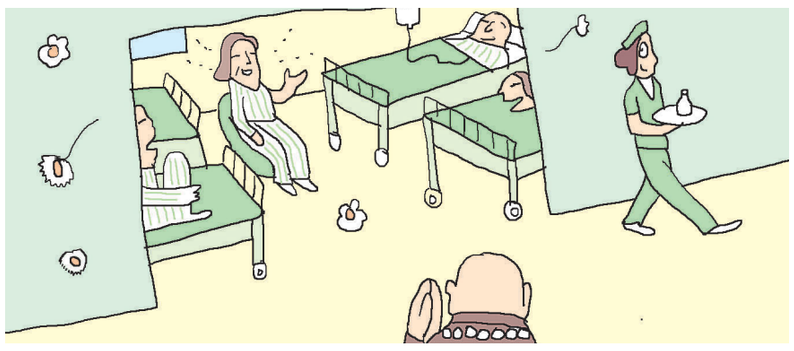
전법일기

꽃 진 뒤 향기 가득하네

"스님~ 저희 병실에도 오셨네요. 호호!"

경찰병원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어느 병실에서 한 보살님을 만났다. 자신의 이름이 '숙희'라며 앉을 자리까지 마련해준 보살님은 전혀 환자로 보이지 않았다. 환자보다는 간병인에 가까울 만큼 웃음이 많고 목소리도 밝았다.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그 이후로 숙희 보살님이 있는 병실을 방문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숙희 보살님은 몸이 좋지 않아 몇 년 동안 수시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은 병실 환자들과 고루 나눴다. 특히 자신도 같은 환자인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인연으로 아는 환우들을 찾아가 말벗을 해주며 상대방을 즐겁게 했다. 유쾌한 성격 덕분이었는지 숙희 보살님은 경과가 좋아져 이내 퇴원했다.


그림 · 박구원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병실을 순회하다가 숙희 보살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처음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큼 내가 알던 숙희 보살님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과 온몸이 퉁퉁 부은 숙희 보살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밝았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변해있었다. 급성 유방암이 원인이었다. 긴급하게 수술이 진행됐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경승실장 스님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

"스님,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차려보니 두 손을 침대에 묶어두었는데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제 손목 좀 보세요. 아직도 퍼런 멍이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아닌데 왜 팔다리를 묶어놓았는지…."

아픈 몸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농을 던지는 숙희 보살님.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웃음이 터졌다. 사실 중환자실에 면회 갔다가 숙희 보살님의 몸부림을 본 적이 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을 텐데 "소문이 다 났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는 보살님의 마음이 무척 고마웠다.

수술이 성공적이었는지 숙희 보살님은 퇴원할 수 있었다. 보살님이 병원을 나설 때 앞으로 달덩이 같은 푸근한 웃음 지을 일만 가득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숙희 보살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돼 손가락조차 오므리고 펴기 힘들다고 했다.

"스님! 그때 그냥 (저 세상에) 갔어야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예쁘게 열심히 사셔야죠."

"오로지 한 구멍으로 가는데…. 도착할 곳은 하난데…. 눈 한번 감았다 뜨니 날이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벌써 지나가네."

혼잣말처럼 무심코 던진 숙희 보살님의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았다. 긴 투병에 어찌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았으리. 얼마 뒤 보살님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돼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렇게 숙희 보살님은 이틀간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임종을 맞았다. 극락세계로 편히 가시라고 나무아미타불 정토염불을 올렸다. 보살님의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원대로 동국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했다.

숙희 보살님은 몇 년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것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겠다며 남편과 상의해 시신 기증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고인의 거룩한 뜻이 의료발전 밑거름이 돼 같은 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마지막까지 보시하는 삶을 살다 가신 고인의 넉넉한 마음. 밝은 빛깔의 꽃 한 송이가 졌는데, 꽃이 진 후에도 방안 가득 그윽한 향이 풍겨 나오는 느낌이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문득 숙희 보살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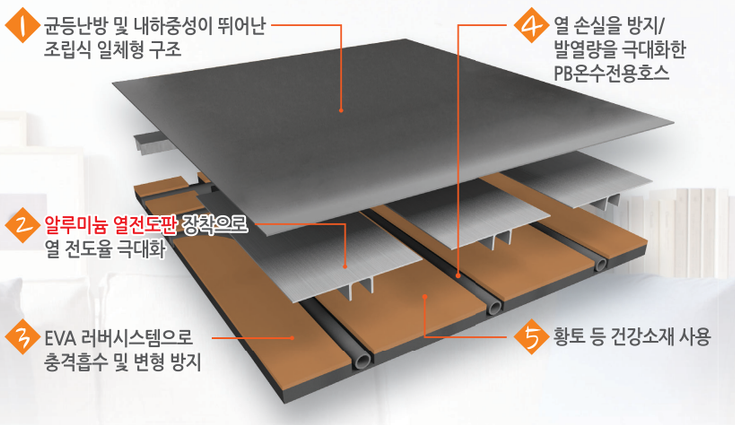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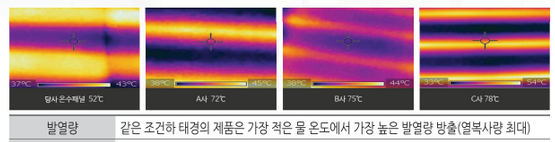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